

# 관상어·미꾸라지로 소득 5천억 시대 연다

## 나주 미래산단 5년만에 첫 삽

전국 첫 민간투자 2400억...내일 착공

### 전남도, 내수면어업발전 5개년 계획 수립

### 품종 육성 등 35개 과제에 3665억원 투입

내수면 양식이 어업인에게 부를 안겨줄 뿐 아니라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늘어 생태체험 및 휴식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전남도는 24일 “내수면 어업의 지속적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오는 2016년까지 총생산량 1만, 생산금액 5000억원 소득 창출을 목표로 ‘생태환경과 함께하는 내수면어업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5개년 계획은 내수면어업법과 농림수산식품부의 ‘제3차 내수면어업발전 기본계획’에 따라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중·장기적으로 전남도 내수면어업의 역량을 강화해 풍요로운 농·어촌 실현을 위한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친환경 고부가가치 양식 품종 집중 육성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와 관리 강화 ▲수산물 안전성 확보 및 관광레저산업 육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내수면 어업관리 등 총 4개 분야 35개 과제로 구성됐으며, 이를 위해 총 3665억원을 투입한다.

친환경 고부가가치 양식품종 집중육성은 낙후된 내수면 양식시설 현대

화하고, 미꾸라지·동자개 등의 대량 생산기술을 개발해 수산물 수입에 대비하는 프로그램이다.

또 내수면 관상어산업 육성과 재첩·다슬기·진주조개 등 담수 패류의 양식기술 개발, 수중식물인 순채의 재배기술 개발 등 내수면어업의 범위를 확장해 새로운 부가가치산업을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와 관리 강화를 위해 잉어·붕어 등 우량종묘 방류 사업을 확대하고, 지역 여건과 어종별 생태 특성에 맞는 인공산란장을 설치해 멸종위기 어종 복원 및 토산

어종 자원 보존에 노력하기로 했다.

수산물 안전성 확보 및 관광레저산업 육성을 위해선 선진 위생관리 시스템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도입해 양식장 위생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고 수산 식품산업을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최근 주5일제 수업 전면 실시 등으로 체험학습 및 가족단위 여가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농어업과 관광을 접목한 다양한 생태체험 및 휴식공간도 조성하기로 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조감도>

이런 사업은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사업비를 투자, 산단을 조성하는 방식이 아닌 민간사업자가 선(先) 개발한 후 분양을 통해 사업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6월 나주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고건산업개발은 토지보상비와 조성사업비를 포함해 2400억원을 투입해서 180만㎡(54만평)을 개발할 계획이다. 현재 토지 보상은 90%이다.

시는 미래산단의 성공적인 분양을 위해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양재동 AT센터 회의실에서 임성훈 나주시장과 ㈜웨이브텔레텍 등 수도권 기업 7곳과 투자규모 713억원, 고용 예상인원 900명에 달하는 대규모의 투자협약 체결했다. 또한 SC제일은 행 등 4개 은행과도 금융지원 협정을 체결했으며, 수도권기업과 혁신도시 이전기업 연관기업 등 15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가졌다.

/중부취재본부=손영철기자 ycsn@

## “한우 소비해 주세요”

### 함평천지 한우, 국회서 시식·할인판매

한우고기 소비촉진을 위한 ‘함평천지 한우’ 국회시식 및 할인판매 행사가 지난 22일 국회 후생복지관 앞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함평군과 이낙연 국회의원실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함평축협이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 손학규 상임고문, 신기남 국회의원(서울 강서갑)을 비롯한 현역 국회의원들과 윤원중 국회의사무총장, 유재일 국회 도서관장, 재경 함평 향우, 서울 시민 등 15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1+이상 구입용 한우 등심 200kg과 육회용 고기 150kg가 함평군의 특산물인 복분자 와인 ‘레드마운틴’과 함께 시식용으로 제공됐다. 또 등심·안심·불고기용 고기 등 각 부위별 ‘함평천지 한우’가 정상 가격보다 20~50% 가량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됐다.

이날 ‘함평천지 한우’ 외에도 함평에서 생산된 함평나비쌀과 잡곡 등 농·특산물도 600여 만원 가량 판매됐다.

안병호 함평군수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한우 고기를 팔아보는 게 좋겠다” 싶어 지난해에 이어 2년연속 한우고기 시식·판매 행사를 마련하게 됐다”면서 “맛있는 ‘함평천지 한우’도 많이 드시고, 함평과 한우를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함평군은 지난해 6월에도 국회에서 한우고기 소비촉진을 위한 ‘함평천지 한우 시식행사’를 개최한 바 있다.

/서부취재본부=황은희기자 hwang@



“싱싱한 햇마늘이요~”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조영조)는 지난 22일 무안군 삼향면 금요 직거래장터에서 ‘햇마늘 특판전’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6월초부터 출하되는 햇마늘의 소비촉진과 가격안정을 위해 실시됐다. <농협 전남지역본부 제공>

## 영산강주변 4개 기관 공동 업무협약

광주 남구청과 나주시, Korail 광주본부, K-water 전남본부 등 4개 기관이 지난 22일 영산강 물 문화관 북카페에서 영산강을 중심으로 한 지역 관광 산업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동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4개 기관은 앞으로 관광객들에게 각종 편의와 지역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영산강 8경과 나주 테마파크, 황포돛배 등 영산강주변 종합 관광 상품을 공동개발 하고 홍보하는 등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특히 서울역을 출발하는 ‘영산강 체험 철도여행’을 기획한 Korail의 열차를 활용할 경우 새롭게 복원된 영산강 수변공원과 자전거 길을 비롯한 천연 목사골 나주의 영산포 전통시장, 광주 남구 칠석동 고싸움 놀이 체험하면서 영산강 인근에 산재한 관광지와 다양한 남도음식을 맛볼 수 있다.

K-water 신승은 전남지역본부장은 “4개 기관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별도의 실무기구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히 서울역을 출발하는 ‘영산강 체험 철도여행’을 기획한 Korail의 열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 전 북

## 남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가동

남원축협농협(조합장 임승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가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남원시와 축협농협은 지난 22일 급지면 신원리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에서 이환주 시장, 조영연 시장의, 과수농가,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가졌다.

축협농협 산지유통센터는 사업비 38억1000여만원이 투입됐으며, 선별 포장시설과 예냉고·저온 저장시설과 지게차, 운반상차 등 현대화된 시설·장비를 갖췄다.

유통센터가 가동되면서 농민은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에만 주력하고, 유통·판매는 유통센터가 담당하는 산지유통체계가 구축됐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규모화·현대화된 유통센터에서 공동판매하는 농산물은 소비자의 신뢰 확보는 물론 외국산 농산물과 경쟁하는 세계적인 파워브랜드로 자리 매김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백성기기자 bs8787@

## ‘수출 효자’ 농수산물식품

### 김·파프리카 등 수출액 전년보다 34% 늘어

올해 전북도 농·수산물 수출 실적 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24일 전북도에 따르면 5월 기준 전국 농·수산물 수출액은 732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5460만 달러에 비해 3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6.5%에 그친 전국 농·수산물 수출 증가율보다 매우 높은 성장세로, 전국 9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성장률이다.

올해 수출금 1위인 일본의 경우 지난해에는 지진 피해로 농수산물 수출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올해는 김·파프리카·김치 등의 수출 호조에 힘입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2% 증가한 2660만 달러를 기록했다.

또 태국·베트남은 각각 700만 달러, 460만 달러로 동남아 국가의 수출 증가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1640만 달러를 기록한 김(원조김·조미김)이 1위를 차지해 최고 수출 효자 품목임을 입증했다. 장미는 77.7%의 수출 증가율을 보이

면서 850만 달러로 2위를 기록했다. 540만 달러를 수출한 닭고기는 익산 싱그린푸드 시스템사의 냉동 육계, 하림의 삼계탕 수출 호조로 새로운 수출 전략 품목으로 떠올랐다.

전북도 관계자는 “올해 농·수산물 수출 목표인 2억달러 달성을 위해 국외 대형 유통매장 입점을 통한 안정적인 수출선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시장개척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 정읍 시립박물관 개관

정읍시립박물관이 문을 열었다.

정읍시는 지난 22일 개관식을 갖고 인계기사, 최치원 영정 등 주요 문화유산을 기증한 20여명의 기증·기탁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정읍시는 총사업비 56억원을 투입해 부지 1만9862㎡에 건축 연면적 1795㎡(지상 2층·지하 1층) 규모의 시립 박물관을 건립했다.

박물관은 상설 전시실 3실과 기획전시실 1실, 수장고, 문화체험실, 홍보휴게실, 사무실을 갖췄다. 야외에

는 산책로, 삼국시대 가마터 보호각, 청동기시대 고인돌 및 삼국시대 고분유적, 소리놀이터 등이 조성됐다.

박물관 측은 개관기념으로 ‘1592년 조선왕조 실록 삼천리 여정을 시작하다’라는 주제의 기획특별전과 여류종류가였던 고 임영순 여사의 생애와 유물을 ‘6월의 유물전’으로 마련했다.

또 부대행사로 ‘수직체험 인증샷 코너’, ‘전통 한지 일기장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

## 소형 선박 면허 불안서도 취득

소형선박 조종사 면허를 불안에서 취득할 수 있게 됐다.

부안군은 “그동안 소형선박 면허를 취득하려면 부안과 인천에 위치한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교육 후 발급됐으나, 편의제공 차원에서 해양수산연구원 측에 출장교육을 요청해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을 지역 내에서 실시하게 됐다”고 24일 밝혔다.

교육기간은 7월 4~6일 동안 40여명을 대상으로 변산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진행된다.

이번 교육을 통해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대상자는 다음달 4일 교육장소에서 사진 1장(3×4cm)과 신분증·교육비(7만4000원) 등을 제출·신청하면 된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신선놀음 따로 없네” 지난 23일 ‘고창 북분자와 수박 대축제’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인천강 배바위 선착장에서 뱃놀이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고창군 제공>

## 단신

### 고창 상하~구시포 도로 내일 개통

지방도 733호선인 고창군 상하면 소재지와 구시포 해수욕장을 연결하는 4.5Km 구간 중 4Km 구간이 26일 개통된다.

지방도의 조기 개통으로 26일 개장되는 구시포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구시포 해수욕장은 매년 20여만명의 관광객이 찾지만 도로폭이 협소해 사고 우려가 컸다.

전북도는 사업비 255억원을 들여 2007년 착공한 지방도 733호선 4차선 확장공사 구간(4.5km)을 7월말 개통할 예정이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 군산시, 내달 14일 ‘아빠와 박물관 여행’

군산시 건강가정지원 센터는 다음달 14일 군산대 박물관에서 아버지와 자녀가 함께하는 토요일 프로그램으로 ‘아빠와 떠나는 박물관 여행’을 실시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화에서 전문 인력의 진행으로 ▲교과서 속 내 꿈 찾기 ▲나와 닮은 유물 ▲내 보물 전시하기 ▲구불길 따라 문화재 여행 등의 체험활동을 통해 아이들의 창의력을 키우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가신청은 27일까지 홈페이지(gunsanfc.familynet.or.kr)로 하면 된다. 문의(063-443-5300)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 정읍시 내달부터 야간민원실 주 2회 운영

정읍시는 다음달부터 야간민원실 운영을 매주 1회에서 2회로 확대한다.

야간 민원실은 매주 화·목요일 오후 8시까지 운영되며, 여권발급을 비롯해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등 7종을 처리한다.

김생기 시장은 “직장인 등 기관의 업무시간에 종합민원실 방문이 어려운 시민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야간 민원실에 대한 시민들의 호응이 기대 이상으로 높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

### 순창군 농·특산물 포장재 공급 지원 확대

순창군은 지난 200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농·특산물 유통 포장재 공급사업을 확대지원할 계획이다.

군은 지역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을 직거래나 전자상거래 판매 등에서 순창만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소비자들에게 구매 충격을 유도하기 위해 포장재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보조금 5억, 자부담 5억 등 총 10억원이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